

광주 동부서 이전 5년째 '제자리'

신청사 건립할 마땅한 부지 못찾아 지원중·계림 7구역도 부적합 판정

광주동부경찰이 수년째 신청사 이전을 추진하고 있지만 마땅한 부지를 찾지 못해 고심하고 있다. 경찰은 기존 청사가 낡은데 주차공간이 너무 협소하다는 판단에 따라 지난 2008년부터 청사 이전을 검토해왔다.

27일 동부경찰에 따르면, 경찰은 최근 동구 지원중학교나 계림 7구역으로 청사를 이전하는 방안을 동구청과 협의해 왔다. 경찰은 그러나, 이들 부지로 신청사를 이전하는 것에 대해 부적합 판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지원중학교 부지는 면적 9900㎡

(2994평)에 그쳐 너무 비좁고, 계림 7구역은 1만6500㎡로 면적은 충분하지만 개인 소유여서 자칫 매입가격 문제로 구설수에 오를 수 있다는 판단을 했기 때문이다.

신청사 이전 부지를 물색 중인 경찰은 개인소유가 아닌 공공용지 교환 방식으로 신청사를 이전한다는 방침이며, 건축비 수백억 원은 경찰청과 협의해 왔다. 경찰은 그러나, 이들 부지로 신청사를 이전하는 것에 대해 부적합 판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동부경찰서 부지의 평당 가격이 248만원(이날 현재 공시지가 기준)으로 평당만 106억6000만 원에 이

른다는 점을 감안하면, 건축비를 포함해 최소 300억원 이상의 이전비가 들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그동안 수차례 신청사 이전 부지를 물색해 왔으나 번번이 무산되며 마땅한 부지를 찾지 못해 신청사 이전 계획조차 수립하지 못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 2011년 광주여고(1만 5000㎡·4537.5평)에 신청사를 건립하는 대신 현 경찰서 부지를 2015년 완공예정인 국립 아시아문화전당 주차장으로 쓰는 안을 광주시에 제안했으나 끝내 무산됐다. 광주시가 광주여고 부지를 국립 아시아문화전당 주차장으로 활용하기로 최종 결정했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경찰서 부지 등이 특급호텔(40층 규모·2500억 원 투자)을 짓는 사업이 추진됐으나 투자자가 발을 빼면서 수포로 돌아갔다.

광주시는 해당 부지의 땅값이 오른데다, 호텔을 건립하더라도 수익성이 없어 민간 투자방식의 호텔 건립사업을 접었다고 밝혔다.

오윤수 동부경찰서장은 "건축비의 경우 청사가 낡고 오래돼 우선순위로 지원받을 수 있지만, 부지문제는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할 부분"이라며 "(부지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신청사 이전 사업을 진행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며, 중·장기 계획도 아직 세우지 않은 상태"라고 말했다.

한편, 총 면적 4302.1㎡(약 1301평) 규모의 동부경찰서 본관(지하 1층·지상 4층 규모)은 지난 1982년 완공됐다. 모두 345명의 경찰관이 근무하고 있으며, 주차 가능대수는 48대에 그치고 있다.

/이종행기자 galee@kwangju.co.kr



박정희·김대중 기념관 사업 권노갑·이정현 '상생 품앗이'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최측근이자 동교동계의 좌장인 권노갑(83·사진 왼쪽) 민주당 고문과 박근혜 대통령의 '대변인'으로 통하는 이정현(55) 청와대 정무수석이 '상생 품앗이'에 나서 화제다.

다음달 15일 개관 예정인 '김대중 노벨평화상 기념관' 재단법인 설립을 위한 이사회가 최근 서울에서 구성됐다. 이사회는 재단 명에 이

권 고문은 지난 1999년 7월에 창립한 '박정희 대통령 기념사업회'에 부회장으로 참여했다. 당시 현직 대통령인 DJ는 명예회장을 맡았다.

당시 DJ와 그의 최측근인 권노갑은 박정희 전 대통령 기념관 건립 권고문을 지난 1999년 7월에 창립한 '박정희 대통령 기념사업회'에 부회장으로 참여했다. 당시 현직 대통령인 DJ는 명예회장을 맡았다.

당시 DJ와 그의 최측근인 권노갑은 박정희 전 대통령 기념관 건립 권고문을 지난 1999년 7월에 창립한 '박정희 대통령 기념사업회'에 부회장으로 참여했다. 당시 현직 대통령인 DJ는 명예회장을 맡았다.

마음으로 가까이 응하겠다"고 답했다고 한다.

권 고문과 이 수석은 공통점이 있다. 각각 DJ와 박 대통령의 곁을 떠나지 않으며 고락을 같이해 왔다는 점이다.

DJ의 목포상고 4년 후배인 권노갑은 1961년 DJ가 강원도 인제 보림선거에 출마했을 때부터 2009년 서거할 때까지 분신 역할을 했다. 지난해 대선 때 동교동계가 분화하며 한

권, 1999년 기념사업회 부회장 맡아 후, 노벨상 기념관 발기인 참여 보은

립 분위기를 조성하고 정부 예산 200억원을 지원하는 등 박정희 대통령 기념사업회 창립을 물심양면으로 도왔다. 이러한 점 때문에 이번엔 박 대통령의 측근인 이 수석이 '보은의 품앗이'에 나선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다.

권 고문은 기념관에 참여할 여권 인사를 물색하던 중 김성태 전 문화관광부 장관이 이 수석을 발기인으로 추천했고, 박지원 민주당 의원이 이 수석을 전격해 참여를 부탁하게 됐다고 한다. 이 수석은 이 같은 제안을 받고 "제가 오히려 황송하다. 이렇게 역할을 주니 감사하고 고맙다. 당연히 기

립 분위기를 조성하고 정부 예산 200억원을 지원하는 등 박정희 대통령 기념사업회 창립을 물심양면으로 도왔다. 이러한 점 때문에 이번엔 박 대통령의 측근인 이 수석이 '보은의 품앗이'에 나선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다.

권 고문은 기념관에 참여할 여권 인사를 물색하던 중 김성태 전 문화관광부 장관이 이 수석을 발기인으로 추천했고, 박지원 민주당 의원이 이 수석을 전격해 참여를 부탁하게 됐다고 한다. 이 수석은 이 같은 제안을 받고 "제가 오히려 황송하다. 이렇게 역할을 주니 감사하고 고맙다. 당연히 기

회간·김경재 전 의원 등이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 진영으로 이탈할 때도 그는 야권을 지켰다.

곡성 출신인 이 수석은 박 대통령이 2007년 대선 후보 경선에서 패배한 뒤부터 후대전화를 10여 개 지니고 다니며 박 대통령의 '일' 역할을 맡았다. 경선 패배 후 이명박 후보 측에서 선대위 고위직을 제안했으나 이를 고사할 정도로 '박근혜 사람'으로 의리를 지켰다.

한편, 김대중 전 대통령의 노벨평화상 수상을 기리는 '김대중 노벨평화상 기념관'은 다음달 15일 목포 삼학도에 개관한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순천만정원박람회 내달 1일부터 개장 2시간 연장

다음달 1일부터 2013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 개장 시간이 연장된다.

정원박람회조직위는 27일 "여름철 낮시간이 길어짐에 따라 내달 1일부터 박람회 개장시간을 오전 9시~오후 7시에서 오전 9시~오후 9시로 2시간 연장한다"고 밝혔다.

개장 시간이 연장되더라도 순천호수정원내 봉우리 지역, 한국정원을 포함한 한국정원 뒤편 수목원, 어린이놀이장 등 안전요소와 있는 일부 지역은 종전처럼 오후 7시 이전까지만 관람이 가능하다.

조직위의 한 관계자는 "개장 시간이 연장되더라도 운영 인력 증원이 기존 인력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추가 운영비 지출 등은 없을 것"이라며 "비상시에 대비해 자원봉사 인력을 최대한 확보,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20일 개장, 38일째인 이날 오전 누적 관람객 수는 151만7423명으로 공식 집계됐다.

/순천=김은중기자 ejkim@

광주시청 광장에 스케이트장 들어선다



市, 추경예산 3억원 편성...12월 개장

광주시가 올 겨울부터 시청 옆 문화광장에 스케이트장(조감도)을 운영하기로 해 시민들이 크게 반기고 있다. 매년 순천만원칙적 적자경영을 하고 있는 영주실내빙상장도 스케이트 인구 증가로 적자폭이 감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27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청 광장 야외음악당 쪽에 스케이트장을 설치해 올 12월 개장하기로 했다. 스케이트장 규모는 가로 30mX세로 60m, 1800㎡ 크기다.

시는 최근 스케이트장 설치비로 추경예산(산안)에 3억원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다. 시는 스케이트장 주변에 운영본부, 물품보관소, 안내소, 의무실, 매점, 북카페 등을 설치할 계획이다. 시는 민간 또는 시체육회에 위탁해 스케이트장을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스케이트장 이용요금은 서울광장처럼 시간당 1000원(장비대여료 무료)을 받고 12월 중순부터 이듬해 2월 중순까지 2개월간 운영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2011년 현재 전국 자치단체에서 운영중인 스케이트장은 서울 시청 광장(이용객 42만명), 오산시청 앞(10만명), 대구시 스케이트장(9만명), 천안시 스케이트장(15만명), 안산시 스케이트장(10만명), 울림피공원 스케이트장(10만명) 등이며, 입장료는 무료 또는 1000원이고 스케이트대여료로 1000원을 받고 있다.

주부 김미연(38·서구 쌍촌동)씨는 "겨울철이면 초등학교생 아들과 함께 놀만한 야외시설이 없어 고민이었는데, 저렴한 이용요금의 야외 스케이트장이 생긴다고 하니 너무 좋다"고 말했다.

앞서 강운태 광주시장은 지난 1월 "서울광장 야외 스케이트장처럼 12월부터 2월까지 시청 내 문화광장에 빙관장을 임시로 설치해 시민이 도심 속에서 안전하고 쾌적하게 스케이트를 즐길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해보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스케이트장 설치 작업에 착수한 광주시는 지난 2월 14일부터 이달 22일까지 일반시민 457명과 초·고등학교생 750명 등 총 1207명을 대상으로 시청 문화광장의 스케이트장 조성 찬반 입장을 묻는 결과, 75%인 906명이 찬성했다.

광주시 장학기 회계과장은 "겨울철 시민들에게 야외 놀이공간을 제공해 건강증진을 도모하는 것이 목적"이라며 "장기적으로 빙상인구도 증가해 연간 4000만원 수준의 적자를 보고 있는 영주실내빙상장의 경영에도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김주열 전남개발공사 사장 돌연 사임

전남관광 사장·개발본부장 이어... 파행 운영 우려

전남도 출연기관인 전남개발공사 김주열 사장이 돌연 사임했다.

또 전남개발공사 자회사인 전남관광(주) 이문영 사장도 지난 3월 사임했고, 김명우 개발본부장도 정년을 앞두고 지난달 명예퇴임하는 등 공사 고위 간부들이 잇따라 자리를 떠나고 있다.

이에 따라 사장 후임을 선임하기 전까지 다른 부서 간부들이 겸직하는 등 파행 운영이 우려되고 있다.

전남도는 27일 "전남개발공사 김주열 사장이 이날 박준영 전남지사에게 사직 의사를 밝혀 사직서를 수리했다"고 밝혔다. 전남도는 오는 7월까지 공모를 통해 후임 사장을 선임할 방침

이다.

이날 김 사장은 "새로운 사람이 일을 맡는 게 나을 것 같아 사임하게 됐다"고 밝혔지만 도청 고위 간부와 불화 및 갈등이 컸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 여수 경도 골프장과 리조트, 한옥 호텔 영산재, 오동재, 해남평활호텔 등을 운영하는 전남관광(주)도 이문영 사장이 일신상의 이유로 사직서를 제출해 후임 사장 공모에 들어갔다.

일단 간부들의 퇴진으로 공사의 정상 운영에도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조례상 임시 사장은 공사 선임이사인 전남도 기획조정실장이 맡아야 하지

만 국고 확보 등 기존의 업무량이 너무 많아 현실적으로 공사의 모든 일을 맡보기에는 힘든 실정이다.

또 곡성인 전남관광(주), 개발본부장도 당분간 대행·겸직해야 하기 때문에 당분간 전남개발공사는 사장과 핵심 부서 본부장, 자회사 사장이 모두 없는 기형적인 형태로 운영될 수밖에 없다.

한편 전남개발공사는 자본금 4814억원, 자산총액 1조8299억원으로 남양신도시, 혁신도시, 여수 경도 해양관광단지 등 모두 22개 사업(총 사업비 2조4000억원)에 참여하고 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재)전라남도환경산업진흥원 공고 제2013-2호

(재)전라남도환경산업진흥원장 초빙 재공고

(재)전라남도환경산업진흥원은 환경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경쟁력 강화와 발전을 위해 설립된 전라남도 출연기관으로 환경산업발전 비전과 경영능력을 겸비한 유능한 원장을 공개모집을 통해 초빙코자하오니 많은 응모바랍니다.

1. 임용직위 : (재)전라남도환경산업진흥원장

- 신 분 : 계약직(상근 임원)

2. 자격기준

- 환경산업 분야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기획·경영 및 마케팅 능력 소유자
- 진흥원 인프라 구축 및 자립경영 능력을 갖춘 자로 지도력과 환경 산업 분야에 대한 미래지향적 비전을 갖춘 전문인
- 중앙정부, 전라남도, 관련기관 등과 원만한 관계유지 및 조정수행능력이 탁월한 자
- 3급 또는 3급 상당 이상 공무원으로 2년 이상 환경산업 분야 경력에 있는 자
- 진흥원의 경영에 도움이 되는 경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공통사항 :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규정에 걸림사유가 없는 자
 - 해외여행에 걸림사유가 없는 자
 - 공무원채용 신체검사 기준에 걸림사유가 없는 자

3. 임용형태 및 보수

- 임용형태 : 3년 계약직(연임가능)
- 보수수준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개방형 직위 3호의 기준에 의하여 연봉이 책정되며, 구체적인 금액은 능력·자격·경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함.

4. 전형방법 및 절차

- 1차 전형 : 서류전형(합격자 개별 통보)
- 2차 전형 : 면접전형
 - 환경산업발전 비전과 경영계획 발표 및 면접 등
 - 일시 및 장소는 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
- 최종 임용자 발표 : 전라남도 홈페이지(www.jeonnam.go.kr) 게재

5. 제출서류

- 응시원서 1부
- 자기소개서 1부
- 주요실적 1부
- 경영목표 및 경영계획서 1부
- * 면접당일 경영목표 및 경영계획서 요약본(A4 3페이지) 7부를 지참하고 서면 또는 PPT로 10분 이내 발표
- 주민등록등본 1부
- 대학이상 학력증명서, 경력증명서, 자격증 또는 면허증 각 1부
- * 국외대학의 학력증명서는 한국연구재단(前한국학술진흥재단) 등록필증 첨부

6.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 원서교부 : 전라남도 홈페이지(www.jeonnam.go.kr)에서 다운로드
- 접수기간 : 2013. 6. 5 ~ 6. 12(5일간, 토·일요일 등 공휴일 제외)
- * 공고기간 : 2013. 5. 28 ~ 6. 4(7일간)
- 접수방법 : 방문 또는 등기우편(접수마감일 18시 이전 도착분에 한함)
- 접 수 처 : (재)전라남도환경산업진흥원 경영기획부
 - (527-811) 전남 강진군 성전면 송계로 650-94(송화리 715)

7. 기타사항

-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제출된 응시 서류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 연락불능, 제출서류 미비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 최종 임용후보 대상으로 결정된 후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신체검사 및 신원조회 결과 걸림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임용을 취소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재)전라남도환경산업진흥원 경영기획부(061-434-945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3년 5월 28일

(재)전라남도환경산업진흥원 이사장